

새한, 채권단-경영진 갈등 심화

채권단, 구미공장 매각불발 책임 김영태 회장 퇴진 요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인 새한의 채권단이 김영태 새한 회장의 퇴진을 결의해 채구너단과 경영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채권단은 5월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새한의 구미공장 매각 결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김회장을 퇴진시키기로 결의했다.

채권단은 김회장이 물러난 뒤에는 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워크아웃 기업의 구조조정을 독려하고 있는 금융감독원도 채권단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영태 회장은 채권단 결정에 대해 그 동안 구미공장 매각이 채권단 주도로 추진돼 문제가 있으며 불명에 퇴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새한의 경북 구미 화화섬유 공장 매각을 놓고 채권단과 경영진은 2001년부터 첨예하게 맞서 왔으며, 이에 따라 정상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됐었다.

새한은 2000년 채권단에 제시한 자구계획 가운데 하나인 구미공장 매각과 관련 2001년 중반부터 반대입장으로 돌아섰는데, 구미공장을 매각하면 앞으로 회사가 워크아웃을 졸업하는데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매각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한은 적자를 면치 못했던 구미공장이 2001년 들어 대규모 흑자를 기록해 앞으로 회사가 정상화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익구조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구미공장을 매각하고 비섬유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해서는 회사가 회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최근 새한의 실사를 끝마친 아더앤더슨컨설팅도 당초 계획대로 구미공장을 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2002년 초까지 매각을 완료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은 새한이 2001년과 같은 경영실적을 2002년까지 이어갈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구미공장의 주력인 원료부문은 경쟁이 심해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구미공장을 매각해도 경산공장 직물 부문을 중심으로 새한이 워크아웃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계획을 마련해놓고 있다.

새한은 2000년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채권단에 구미공장의 원면과 원사부문을 매각하고 대신 의류 및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회사를 정상화시킨다는 자구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새한 노동조합도 2002년 1월10일 구미공장 매각을 추진중인 채권단에 경산공장을 같이 매각해줄 것을 제안했다. 구미공장 매각은 새한의 화섬부문 존립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구미공장과 함께 경산공장을 같이 매각하는 등 화섬사업 자체를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한 구미공장은 원사 및 원면을 생산하고 있으며 경산공장은 구미공장에서 생산하는 원료를 이용해 직물을 만들고 있다.

구미공장은 2001년 3842억원 매출에 292억원의 영업이익을, 경산공장은 2876억원 매출에 27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2개 공장 매출은 새한 전체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 05/ 14>